경북 구미·포항 '첨단특화단지' 시대 연다

〈반도체〉 〈2차전지〉

산자부 공모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등 생태계 완성 박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구미-반도체'와 '포항-2차전지'가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차육성위원회 대국민 선언식.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구미-반도체'와 '포항-2차전지'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선정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에 21개 지역이 접수한 가운데 반도체 2개소(경북 구미, 경기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충남 천안·아산), 2차전지 4개소(경북 포항, 충북 청주, 전북 새만금, 울산) 등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 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반도체, 2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이끌 수 있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북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000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다.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 개사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 육성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으로 생산유발 5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 9000억 원, 취업유발 6500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2차전지, 국방, 미래 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

경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기업의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3가지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한다.

또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12인치 웨이퍼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구미 반도체와 더불어 포항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됐다. 이번 포항의 2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는 양극재 생산 글로벌 톱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2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유일 '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포항은 기구축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2019년 배터리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2022년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2023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업무체결(MOU)까지 그간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북 양극재산업 특화단지(포항)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 전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t의 16.5%를 차지하는 100만 t(연산)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은 전력·용수·폐수 등 지속 가능한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2차전지 원료·소재의 내재화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2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경북이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인프라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2030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경북 반도체, 2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경상북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한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조감도.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예타타당성 통과로 경북 고무

경상북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한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예타사업은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240㎡ 부지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18억 원(국비 627억 원, 지방비 738억 원, 민자 553억 원)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다.

클러스터 조성 주요사업은 기업 집적화 코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국산화 시범 코어의 3개 핵심코어로 조성한다.

먼저 기업집적화코어로 본 사업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참여기업 30개 사와 20만457㎡ 규모로 조성한다. 수소전문기업 간 연계를 통해 연료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는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표준화 기반으로 1만1407㎡규모로 개발한다. 장비동 및 기업실험동 건립을 통해 대용량 핵심부품 평가장비 20종 26기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시범 코어는 8500㎡ 규모로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 장비 7종 24기가 들어선다. 특히 기업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최종 평가하고 기술경쟁력 제고에 활용되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주문진 제2청사 시대 '활짝'

오늘 오전 10시 주문진 제2청사 글로벌관서 개청식 개최
민선 8기 도정 핵심공약… 영서·영동 균형발전 선도 역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오전 10시 제2청사 글로벌관(강릉 주문진 도립대학교 소재)에서 개최돼 공식 출범한다. 강원도 제2청사로 사용되는 강릉 주문진읍 강원도립대 청운관.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민선 8기 도정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이자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오전 10시 제2청사 글로벌관(강릉 주문진 도립대학교 소재)에서 개최돼 공식 출범한다.

개청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을 비롯한 언론사, 대학, 도 단위 기관장들과 2청사 근무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2청사 개청을 함께 축하한다.

이 자리에서는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 등 개청을 기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제2청사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도정 공약이었으며 초기 개청에 대한 김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올 3월까지 기능과 규모, 역할 등에 대한 검토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마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기 출범하게 되었다.

전체 조직은 1본부장, 3국, 1기획관, 4사업소, 287명 규모이며, 청사는 강원도립대학교 청운관 건물과 (구)환동해본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각각 '글로벌관', '환동해관'으로 칭한다.

초대 글로벌본부장은 정일섭 도 행정국장이 임명되었다. 주요기능은 △영동·남부권 정책 기획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탄소·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 디지털산업 및 폐광·탄광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관광 정책·산업 △해양수산 정책·산업육성 총괄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난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발 빠르게 2청사를 개청하여 영서와 영동이 함께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앞으로 2청사에서는 영동과 남부권의 핵심산업에 대해 도청 행정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해 행정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데 2청사 출범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2청사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올해에는 비전과 목표 등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업무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2청사가 출범했다. 2청사는 단순한 분산이 아닌 확장개념으로 영동과 영서가 하나 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동해 무릉별유천지 관광 자원화 사업이 21일 국토부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탄력 동해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동해 무릉별유천지 관광 자원화 사업이 21일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로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비 확보 등 청신호가 켜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무릉권역 관광벨트화 구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으로 제시한 무릉별유천지 관광 자원화사업을 통해 시는 무릉별유천지 내 24명이 동시에 탑승가능한 4.8km 구간의 순환형 모노레일을 비롯해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총 5개의 모노레일 스테이션을 구역 내 설치하게 된다.

또한 청옥호에 수상교량, 수상정원(휴게시설 및 친수공간) 등 국내 유일의 친수테마 상업시설과 파고라, 벤치, 트렐리스(덩굴 식물을 지탱하는 구조물) 등의 조경시설과 초화원으로 구성된 1만6000㎡ 규모의 에메랄드 가든도 조성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아트, 광장 등 야간경관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우주산업 미래 초석' 튼튼히 다지는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가 21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21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에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경남에 위성특화지구가 조성되면 2031년까지 도내에서 446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0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316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기반 구축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등 위성 개발의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주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기술센터 △우주산업 지식센터 △미래 우주산업 기술시험 센터 구축 등도 담았다.

원향희 기자 whh@skyedaily.com

철원 DMZ 성재산·용양보 일원 도립공원 지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생태·역사적 가치 인정

강원특별자치도는 김화읍,근북면 성재산 및 용양보 일원 4.7㎢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비무장지대(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김화읍, 근북면 성재산 및 용양보 일원 4.7㎢를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철원 성재산 및 용양보 일원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남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국내·외적으로도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부터 'DMZ 생태평화공원'을 통한 탐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지역이기도 하다. 2026년부터 공원설치 등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DMZ생태벨트 구축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